

여수 해양오염사고 위험도 20.3% 최고

〈상대적 위험도〉

해경안전본부 해역 17곳 '해양오염 위험지수' 발표

유류 물동량 많고 사고 잦아...당국·업계 경각심 필요

여수 해역이 국내에서 해양오염사고 위험도(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안안전본부)가 최근 공개한 '해양오염 위험지수'에 따르면, 여수 해역의 위험지수가 20.3%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오염 위험지수는 전국 17개 해양경비안전서(해경) 관할 해역의 해양오염사고 발생위험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위험지수가 발표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해양오염 위험지수는 과거 30년간 발생한 중질유 오염사고 3478건의 분포, 해역별 화물선 입출항 빈도와 유류 물동량을 근거로 산출했다. 중질유는 바다에 유출돼 휘발되지 않고 장시간 남아 환경 파괴 위험이 큰 원유와 병커시유 등이다. 해경안전본부는 "과거 오염사고 통계만으로는 현재의 위험 요인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항만별 화물선 입·출항 빈도와 유류물동량도 지표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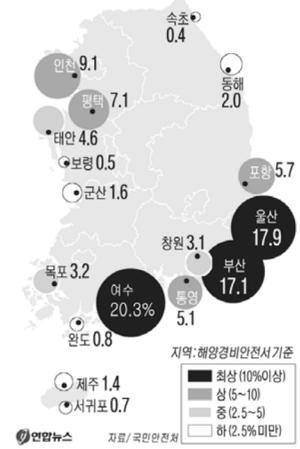
위험지수를 보면 여수가 20.3으로 17개 해역 가운데 가장 높다. 우리나라 전체 해역 위험이 100이라면 여수 해역이 차지하는 해양오염 사고 위험 비중이 20.3이라는 뜻이다. 여수 해역은 유류 물동량이 많은

데다 해양오염사고가 자주 발생해 해양오염 위험지수가 가장 높게 나왔다. 해경안전본부는 설명했다. 실제 여수에서는 지난 1995년 5034t의 원유가 유출된 씨프린스호 사고 등 국내 10대 해양오염 사고 중 5건이 발생했다. 해경안전본부는 17개 해역을 위험 순으로 '최상'(위험지수 10 이상), '상'(5 이상 10 미만), '중'(2.5 이상 5 미만), '하'(2.5 미만) 등 4단계로 분류했다.

울산과 부산 지수도 각각 17.9와 17.1로 여수와 함께 위험도가 가장 높은 그룹인 '최상'에 올랐다. 인천(9.1)·평택(7.1)·포항(6.7)·동영(5.1)은 위험도 '상' 해역으로 분류됐다. 태안(4.6)·목포(3.2)·창원(3.1)은 위험도 '중' 해역에 속했다. 우리나라 최악의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태안이 위험도 '중'으로 분류된 것은 지난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오염사고 외에는 특별한 사고가 발생치 않았기 때문이다. 동해(2.0), 군산(1.6), 제주(1.4), 안도(0.8), 서귀포(0.7), 속초(0.4)는 위험도 '하'로 분류됐다.

■해역별 해양오염 위험도

우리나라 전체 해역의 위험도 = 100, 해당 해역의 상대적 위험도(%)



씨프린스호 기름유출 현장. <경주일보 자료사진>

해경안전본부는 위험지수를 바탕으로 방제 인력·자원을 재배치하고, 해경안전서별 확보 목표치를 설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과 업계에 널리 알려 사고 경각심을 높이는 데도 활용하고, 이를 계기로 해양사고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펼칠 예정이라고 국민안전처와 해경안

전본부는 밝혔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매년(2014년 기준) 화물선 38만5000여 척이 입·출항하고, 3.16억여 t의 기름이 해상 운송되고 있어 언제라도 대형 오염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서 "해양오염 위험지수를 토대로 해역 이용자들이 해양오염에 경각심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숲 속 친환경체험으로 어린이 질환 치유

환경부 '건강나누리캠프'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어린이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건강나누리캠프를 23일부터 10월 중순까지 운영한다.

지난 2009년 시작한 캠프는 환경성 질환으로 고통을 겪는 어린이가 자연 환경이 우수한 국립공원에서 친환경 체험을 하면서 환경성 질환의 예방·관리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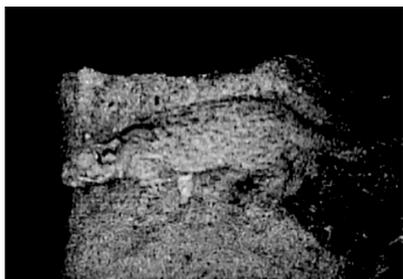
올해 캠프는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 등 전국 12개 국립공원사무소, 전남대병원 등 8개 환경보건센터, 지역 보건소 등 의료기관, 4개 환경성 질환예방·관리센터 등이 함께한다. 총 100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다. 전문의사의 교육과 상담, 알레르기 반응검사, 친환경 소품 만들기, 힐링 숲길 걷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환경성 질환을 겪는 어린이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캠프는 주말과 방학 기간에 운영한다. 참가 신청은 국립공원 에코투어 홈페이지(ecotour.knps.or.kr), 전국 12개 국립공원사무소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061-371-5700),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설서비스부(02-3279-2984)로 문의하면 된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월출산·속리산에 멸종위기 담비·삵·수달이 살아요



담비



삵



수달

국립공원관리공단 촬영... "보호 위해 탐방로 이용" 당부

월출산과 속리산 국립공원에 담비와 삵, 수달 등 멸종위기종 야생생물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두 곳의 국립공원에 설치한 무인센서 카메라에 지난해 가을부터 최근까지 멸종위기종 1급 야생생물 수달과 2급인 담비, 삵 등의 모습이 촬영

됐다고 26일 밝혔다. 담비는 2~4마리씩 무리를 지어 활동하는 모습이 월출산, 속리산 일대 여러 곳에서 포착됐다. 그간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던 삵도 카메라에 잡혔다. 수달은 담비가 촬영된 같은 장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잡혔고, 월출산 저수지 주

변의 바위에 오르는 모습도 확인됐다. 노루, 고라니, 오소리, 족제비 등 다양한 포유류의 모습도 포착됐다. 월출산 국립공원 내에서 담비 4마리가 무리 지어 다니는 모습이 촬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공단은 전했다. 수달, 담비, 삵이 함께 서식하는 곳으로 확인된 곳은 월출산 국립공원의 서남부권역으로 평야 지대에 우뚝 솟은 독립된 생태 섬을 이

루고 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환경부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계장은 "초식성, 잡식성 포유류와 이런 초식동물을 먹이로 하는 담비, 삵이 함께 촬영돼 백두대간의 건강한 생태축이 확인됐다"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보호하려면 국립공원 탐방 때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가슴기 살균제 피해 내달 추가 접수

환경부, 내년까지 판정 마무리

환경부는 다음달부터 가슴기 살균제 피해 사례를 추가로 접수한다. 환경부는 또 현재 진행 중인 3차 조사 신청자의 피해 판정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정부 고시로 지난해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정했던 피해조사 신청 접수 기간을 얹어고 당분간 계속 피해 사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추가 피해 사례 접수(4차)를 위해 다음달 중 관련 고시도 개정하기로 했다.

조사 신청을 원하는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는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사본, 진료기록부, 엑스레이, CT 등 의료기관 진단 자료를 준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3800-575)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eiti.re.kr/wat/page12.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지난해 말 마감한 3차 피해조사 신청에는 총 752명이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울야생생원을 중심으로 조사와 판정 절차를 밟고 있다"며 "가급적 내년 말까지 3차 조사를 마치고, 이미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한 신청자들은 늦어도 올해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미 조사, 판정을 받은 피해자를 모니터링해 폐 이외에 다른 부분에도 피해가 있고, 새로운 피해 부분과 관련된 진단·판정 기준이 마련되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진행한 1, 2차 조사 때는 530명이 조사를 신청해 221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자로 인정된 221명 중 95명이 숨졌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h3>커피숍 상가 건물 매매(전대정문)</h3> <p>전대정문 모아 A.P.T 후문 코너자리</p> <p>1층 (커피숍 입점)</p> <p>2층~3층 (고급 룸 8개) 4층 (주택)을 주택 (방 3개, 화장실 2개, 내부 깔끔한 화이트, 다용도실)</p> <p>임대완료 정남향 코너자리</p> <p>□ 월수익 → 480만 □ 매가 → 6억 8천만 (응 1억5천 보 1억5천) (실투자 3억 8천)</p> <p>(※ 주인직매) 010-6670-9800 010-7384-7800</p>	<h3>근린상가 오피스텔 매매</h3> <p>소액투자 가능, 3천만~2억</p> <p>□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6층 (45평) 을수리 천변로 전망 좋음 → 보증금-1,000만, 월세 60만 (응 5천) □ 매가 1억 1천만</p> <p>□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 6층 (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역 → 보증금 500만, 월세 45만 (응 1천 6백만) □ 매가 8천 500만</p> <p>□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역 → 보증금 500만, 월 42만 (응 2천4백만) □ 매가 7천 500만</p> <p>□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빌 (빌라 원룸) → 2층 (11평) 은천역 1번출구에서 3분거리 → 보증금 200만 월 30만 (응 1천) □ 매가 3천 5백만 (전세값으로 내집 마련)</p> <p>□ 광산구 월계동 참다지구 1층 상가 → (40평) 1층 상가, 미용실, 식당, 프랜차이즈 추천 → 보증금 800만, 월 80만 (응 4천) □ 매가 1억 5천만</p> <p>□ 전남 광양 광영동 상아아파트 → (6평) 2층 - 전경 좋음, 주변 골목상, 아파트 밀집지역 → 보증금 200만, 월 25만 (전세 2천5백만 가능) □ 매가 3천 5백만</p> <p>010-6834-4800</p>	<h3>법률경매</h3> <p>(특수물건 추천)</p> <p>□ 전남 장성 삼서 → (토 3492평, 건 5733평) (의료시설) → 1층~3층 (의료시설) 전 요양병원 운영 → 정성 상무대 입주, 대로변 □ 감정가 48억 8천 6백 → 최자가 34억2천만</p> <p>□ 서구 양동 → (토577평, 건424평) (숙박시설) → 1층 (주차장, 카운터) 2층~5층 (숙박시설, 40개) → 광주은행 동쪽 인근, 약 10M 도로 접 □ 감정가 10억8천 → 최자가 6억8백</p> <p>□ 서구 화정동 → (토 800평, 건 2567평) (동 나이트) → 광천터미널 뒤편 위치 / 현 나이트 운영중 → (나이트 직영, 터미널 부근 투자 가치 추천) □ 감정가 130억 → 최자가 62억</p> <p>□ 동구 동명동 → (토211평, 건608평) (근린시설) → 1층 (소매점) 2층~6층 (오피스텔 룸) → 동명 교회 북쪽 인근, 4차선 도로 접 □ 감정가 19억 5천 → 최자가 19억 5천</p> <p>□ 전남 순천 조례동 → (토2332평, 건3960평) (근린시설) → 7층건물 (수영장, 사우나, 골프장, 주택, 헬스) 복합 건물 → NCC현장 부근, 대운위아파트 단지, 순천C중상지 대문변 □ 감정가 140억 → 최자가 64억5천</p> <p>□ 북구 운암동 → (토 66평, 건 194평) (근린시설) → 1층~5층(사무실) 지하(음식점), 6차선도로 접 □ 감정가 7억 4천 → 최자가 7억 4천</p> <p>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실전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수요일 (오전, 오후반) 주말반 (오전, 오후반) 경매기본교육부터 실전까지 (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직원구합니다. 부동산, 경매 배우실분, 부동산 자격증있으신분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져처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p> <p>010-6832-9700</p>
---	--	---